

보성군, 안정적 군정 기반...중단없는 발전 실현

‘다시 뛰는 보성 365’ 기치 미래 먹거리사업 박차 김철우 군수 “임기 내 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보성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안정적 군정 기반 위에 성과를 내며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보성600 사업, 경전선 KTX이음 등 미래 대형 먹거리 사업 등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 역점 시책이자 주민 참여 사업인 ‘보성600’ 사업은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클린600, 안심600, 복지600 등으로 600 사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 시책으로 키워가고 있다.

군은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위해 역대 최대 3천99억원 규모의 보통고부세 확보와 전남 1위 인구소멸대응기금(188억원) 확보를 비롯해 보성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등 4개 사업, 사업비 70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성

군 역대 최대 예산인 7천800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60만원의 농어민 공익 수당은 민선 8기 임기 내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공익·친환경농업·발농업 직불제 지급, 벼 출하 장려금 지급,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고 있다.

보성 특산물 분야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보성키위가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1호로 등록됐으며, 제2회 보성키위 축제는 판매소득 1억원을 달성했다.

보성군만의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봉산 구들장을 모티브로 한 오봉산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 사업(57억원)을 추진하고 태백산맥 테마파크



보성군이 안정적 군정 기반 위에 성과를 내며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사진은 ‘보성600’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마을에서 해바라기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80억원),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열선루 중건 및 보성 신홍동산 종합 개발사업(171억원), 보성 차정원(90억원)을 조성 중이다.

산림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자랑할 만

하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전남도 유니크베뉴, 휴양림 내 전남권환경정성질환 예방센터는 3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보성 관광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3조6천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전선, 남해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보성읍, 벌교읍 두 곳에 정착하는 KTX-이음이 완공되면 보성에서 부산까지 2시간, 보성에서 서울까지 2

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성읍(410억원)과 벌교읍(404억원) 중심부에는 각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중이다. 생활문화센터, 볼링장, 수영장, 영화관 등 도시 못지않은 여가생활 공간으로 가꿔 갈 계획이다.

보성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1천614억원)은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281억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일지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벌교-장도 간 생태탐방로 드 ▲보성비봉해안레저단지 ▲음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여주만 벌교갯벌 해안레저공원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며 남해안 중심 해양레저 생태 관광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군민과 함께 일구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의 중심 보성, 임기 내 예산 1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민기자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

2018년 첫 공인 이후 시민 안전 증진 추진 성과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이하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인증받았다. <사진>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5년간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자연·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차 국내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2-23일 ISCCC 심사위원회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조준필 센터장이 심사를 주재해 2차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총괄보고 ▲총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 및 범죄예방 ▲우수사례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 순천시의 안



전증진 추진성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영상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심사에서는 ▲거버넌스 ▲총상감시 ▲포괄적 손상예방 ▲취약계층 및 취약환경 ▲평가 ▲네트워크 추진 사항에 대해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이뤄졌다.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순천시는 2018년 공인 이후 시민이 참여 주도하는 교통안전사업, 찾아가는 노인낙상 예방프로그램, 사전예방중심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업을 통한 폭력예방 추진사업 등 각 분야

별 안전취약부분의 통계 비교분석 자료를 근거해 우수하고 과학적인 안전 증진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순천시가 우수사례로 발표한 ‘시민안전리더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전파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호평했다.

노관규 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그동안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안전 증진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광양제철소,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 ‘박차’

설비 엔지니어 대상 예지정비 기술 양성과정 운영 등

광양제철소가 설비부문 엔지니어의 예지정비 기술 양성과정을 진행하며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제철공정 전반에 걸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광양제철소는 직원들의 스마트 역량 내재화를 위해 올해부터 설비부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예지정비 관련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스터디 그룹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스마트 예지정비 구현 토대를 다지며 설비 혁신과 인

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1대1 기술 지원 제도를 운용, 각 엔지니어들이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스마트 헬프센터’의 전문기술 지원으로 코칭을 받게 된다.

빅 데이터·AI 개발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해 포스코 명장을 비롯한 당사 핵심 전문가가 코칭과 컨설팅 제공에 참여하며 해당 기술의 실증적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병행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증적 적용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스터디 그룹은 매일 정기적으로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AI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설비상태 점검과 수명 예측 등 기술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직원들이 기술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소통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별 1인 스마트 기술 과제를 부여하며,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찬주 광양제철소 설비부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개할 것”이라며 “스마트 제철소를 선도하기 위한 설비 혁신은 물론 인재 양성에도 전념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다문화자녀 ‘이중언어능력 지원사업’ 마무리

곡성군가족센터서 1년간 베트남·캄보디아 수업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능력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능력 지원사업’이 선정돼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곡성군가족센터에서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

츠로 수업을 구성했다.

곡성군가족센터는 2019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나라 말 배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어 이중언어 수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수업을 진행했다.

군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사용 능력을 지원하며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엄마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욕구를 반영해 이중언어반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곡성=이효신 기자

“그림책 뮤지컬 인형극 보러주세요”
여수시립현암도서관, 온라인 접수

여수시는 28일 “여수시 현암도서관에서 다음달 8일 ‘목수장이 엘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월 2회 인형극 무료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그림책 내용을 친숙한 인형극으로 구현,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도서관 관심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7월8일 오전 11시·오후 2시 ‘목수장이 엘리’ ▲8월26일 오전 11시·오후 2시 ‘블랙라이트 미운오리새끼’ ▲9월16일 오전 11시·오후 2시 ‘년 특별하단다’가 펼쳐진다. 참여 대상은 5-10세 어린이와 동반가족으로, 회당 6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7월8일 열리는 ‘목수장이 엘리’는 그림책 ‘년 특별하단다’를 각색한 인형극으로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주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따뜻한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여수시 현암도서관 061-659-4797) /여수=김진선 기자

제9대 담양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최용만 의장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

담양군의회는 “지난해 군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담양군의회가 최근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제9대 담양군의회는 등원 이후 총 10회의 회기(정례회 3회, 임시회 7회)를 내실있게 운영했다.

그간 179건(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43건)을 포함한 조례안 116건, 규칙안 4건, 예산결산안 8건, 동의 승인안 14건, 건의 결의안 4건, 기타 안건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민생 위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군민 편의주의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로 평가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1

년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 ‘농어촌융복합 휴양밸리 사업’ 주민설명회

관산읍행정복지센터...“의견 수용해 사업 추진 반영”

장흥군은 “지난 28일 관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흥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한 삼산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다.

관산을 삼산리, 신동리 일원 24ha 부지에 민자 유치를 통해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153ha, 농어촌관광휴양단지 91ha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유통단지, 그린에너지단지, 블루밍필드, 스마트 수산단지 등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와 콘도미니엄, 스포츠

센터, 농업업 전시·체험관 및 판매장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 SK에코플랜트의 4개 민간투자법인과 ‘블루에너지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계획 및 추진 절차에 대한 협의의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다.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흥=노홍렬 기자